

회원 자율징계 법안 발의 '초읽기' 의료단체에 징계 건의 권한 부여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회원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회원 자율징계권한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법안 찬상의원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의원입법 발의의 경우 현행 국회 법상 찬상의원 10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26조2를 신설, 의료법에 중앙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중앙회의 업무로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그밖에 의료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특히 의료법 제53조의 4(징계)를 신설, 의료인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징계처분을 행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의료인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도 명시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1조 3항 규정)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중앙회에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 63조에 못박았다.

김 의원의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초에는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노인구강건강 증진...치과계 하나로 뭉쳤다” 치아의 날 기념식·건강치아 노인 선발대회 ‘성료’

전체 치과계가 하나로 힘을 모아 노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회적 전기를 마련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이하 치협),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이하 치기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경재·이하 치재협),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김종배·이하 구보협) 등 치과계 5개 유관 단체가 지난 6월 9일 제61회 치아의 날을 맞아 '2006년 치아의 날 행사 및 건강치아 노인 선발대회'(이하 건치노인 선발대회)를 정관계 및 치과계 내빈, 노인 등 3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특히 치과계 사상 최초로 전국적으로 개최된 이날 건치노인 선발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치협 등 치과계 5개 단체가 행사를 주관,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 및 구강건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두를 제시하는 한편 최근 PD수첩 보도를 비롯한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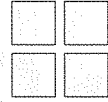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와 명인지약이 후원한 이날 행사의 기념식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 이종구 복지부 보건정책관 등 정관계 인사와 안성모 협회장, 김영곤 치기협 회장, 문경숙 치위협

회장, 이경재 치재협 회장, 김종배 구보협 회장 등 치과계 유관 단체장, 이준하 대한노인회 부회장, 이문령 공단 상임감사, 김민식 국의원 원장, 신영순 한국치정회 회장, 김계중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김경선 대한여자치과과의사회 회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연치아를 가꾸기 위해서는 우선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동안 이 없는 어른신들을 위해 치과계에서 전국적으로 무료 틀니 사업을 계속해왔는데 향후에도 정부와 협의해 정부 예산이 허락한다면 치협에서 적극 참여하겠다. 특히 노인들의 저작권 회복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치과계 단체의 일로 여러 어른신들이 치아건강을 회복해 나라를 위해 굳건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KBS의 노현정 아나운서가 앞으로 국민 구강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적극 알릴 건강치아 홍보대사로 임명돼 이를 위촉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KBS 김현욱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건치노인선발대회에서는 배경남 할머니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용호, 김현규 할아버지, 이은순 할머니가 각각 우수상, 이외 12명의 건치노인들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감염방지 활성화 '실질적 대책' 제시 대한치의학회 '치과진료실의 감염과 예방' 심포지엄

최근 치과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치과 감염 문제와 관련 치의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분석과 함께 대책을 모색해 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치의학회(회장 안창영)는 지난 6월 15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치과진료실의 감염과 예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 감염방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다.

오세광 예미안 치과의원 원장은 '감염방지 활성화를 위해 협회와 정부가 협조하면서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의 주제발제를 통해 구체적인 감염방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치과에서의 감염방지와 관련된 문제는 치과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10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치과사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광 원장이 제시한 감염방지 활성화 방안 중 정부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감염방지 실태조사위원회 설치=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감염방지 실태를 조사하며, 민관이 협력 하에 구성한다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화= 간염, HIV, 결핵, 심장학적 결함 환자, 기타 감염성 질환 이환자 등 감염성 질환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건강보험의 데이터베이스

에 추가해 의료인이라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무균술식개발재단 설립=현재의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는 치과계 자체에서 감염방지 술식의 개발은 불가능하므로 무균 술식을 개발해 보급을 지원할 재단을 설립, 꾸준히 무균술식의 개발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방지실무추진국 신설 ▲건강보험제도의 혁신=보편적 진료에서 타당한 진료로, 저수거에서 적정한 수거로 현실화해야 한다 ▲보건소 치과의 감염방지 규격화=각 지역의 보건소 치과를 감염방지 표준 규격으로 개편, 해당 지역의 모범으로 활용한다.

오세광 원장은 또 치협의 방안으로 ▲감염방지위원회 설치 ▲감염방지 고발센터 신설 ▲교육자료 감염방지 규제 ▲소독제 사용의 알코올 사용 금지 ▲윤리적 규제 ▲노동부 개입에 대한 준비 등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천재식 단국치대 구강생리학교실 교수가 '치과병·의원 감염방지'에 대해, 김각균 서울치대 구강미생물학교실 교수가 'KDA-Infection Control Guidelines'에 대해, 정원균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교수가 '이번 사건을 전 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치의학회 회칙 개정 등 현안 논의 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은 지난 6월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06 회계연도 두 번째 정기이사회를 갖고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학회 회칙 개정건을 비롯해 올해 FDI 연회비 인상분 처리건, 서울지부와 인천지부에서 올라온 회칙 개정의 건 등이 토의됐다.

치의학회 회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55차 치협 정기총회에서 치의학회 명칭 개정에 대한 안이 통과됐으며, 치의학회 사업전개의 효율성 확보, 유관단체 학회 명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학회'를 '대한치의학회'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대의원 수 배정 방법을 비롯해 지구 수정 등의 서울지부 회칙 개정안도 승인했다. 하지만 인천지부에서 상정한 회계연도 기간 변경에 대한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까지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수련고시위원회 위원으로 최성호 연세치대 교수를 추가로 위촉키로 했으며, 올해 FDI 연회비 인상분 처리에 대한 건 등도 논의됐다.

또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감염방지 대책을 위한 그동안의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포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현황 및 개선방향 ▲의약 5단체 신 건강보험전자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조선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대화사업 및 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인성모 협회장은 "최근 감염방지 대책 등을 포함해 각종 현안 해결에 각 위원회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할 것"을 당부했다.